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스타 가족·친구와 함께 추억 공유

SBS '달고나' 22일 첫 방영

스타의 가족·친구·친척들과 함께 스타에 얽힌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온다. SBS TV 새 예능 프로그램 '달고나'가...



MC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영아는 "처음으로 MC를 맡아 많이 떨리지만 두 MC 분들이 베테랑이라 잘 따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 한다"면서 "첫 화에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가족들이...

그는 또 "예전에는 배워가면서 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건 프로답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프로다운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달고나"는 오는 22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9시55분에 방송된다.

'올지마 톤즈'·'사람의 아들' 휴스턴 필름 페스티벌 대상



KBS는 단막극 '사람의 아들'(연출 이원익)과 다큐멘터리 '올지마 톤즈'(사진)(연출 구수환)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휴스턴국제필름페스티벌에서...

'사람의 아들'은 TV 영화·드라마 부문에서, '올지마 톤즈'는 다큐멘터리(인물) 부문에서 각각 대상에 해당하는 플래티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 월화드라마 '추노'(연출곽정환)는 드라마 시리즈 부문 금상, 수목극 '그저 바라만 보다가'(연출 기민수)는 같은 부문에서 은상을 각각 받았다고 KBS는 덧붙였다.

휴스턴국제필름페스티벌은 뉴욕·밴프 TV페스티벌과 함께 북미지역 3대 TV페스티벌로 꼽히는 행사다.

KBS는 지난해 처음으로 휴스턴국제필름페스티벌에 참가, 수목극 '남자 이야기'로 미니시리즈 부문 동상을 받았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6년생 내 것 잃고 송사 당할 수도. 48년생 발전 약속하고 가속 될 수 있는 기회 맞는다. 60년생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37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많으니 주변 살펴보고. 49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61년생 자파하는 격이요. 73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명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38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50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62년생 용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니 스스로 패한다. 74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



39년생 전화위복이나 변동으로 길사가 전개된다. 51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63년생 중인이 나타나서 사건을 가르켜 준다. 75년생 혼분이라도 과욕하면 결과는 대손해로다.



40년생 큰 득은 좋은 마무리에 있다. 52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이 된다. 64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면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 76년생 확신이 없는 투지는 삼가야 하리라.



41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심사숙고하라. 53년생 가내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형상이 발생한다. 65년생 겨우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활동하라. 77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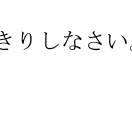
42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54년생 길사에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는 안정 된다. 66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78년생 문사로 인해서 고역이 생길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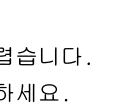
43년생 백사가 순조롭다. 55년생 부부 및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67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을 수도 있다. 79년생 비정한 괴로움이 측근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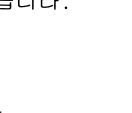
44년생 사회활동을 불편하게 할 주변인이 다가오니 조심하라. 56년생 신사 투자에 손재가 크니 신중하게 속고하라. 68년생 얘기치 못한 역습이니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80년생 융합할 듯한 주변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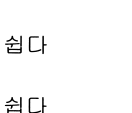
45년생 이해있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57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다. 69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화성되리라. 81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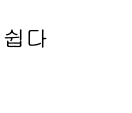
46년생 증식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 되면서도 어수선하다. 58년생 총의 불평사가 발생한다. 70년생 친구 친척 간에 혼사다마가 있게 되니 조심해야 하리라. 82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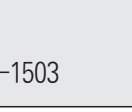
47년생 타에 의한 사인과 손재가 우려 된다. 59년생 헛 문서로 눈물이 걱정된다. 71년생 가정과 배인의 불평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83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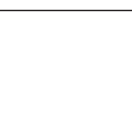
48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54년생 길사에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는 안정 된다. 66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78년생 문사로 인해서 고역이 생길 수도.



49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61년생 자파하는 격이요. 73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명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85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신중함이 있어야.



50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62년생 용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니 스스로 패한다. 74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 86년생 신사 투자에 손재가 크니 신중하게 속고하라. 68년생 얘기치 못한 역습이니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51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63년생 중인이 나타나서 사건을 가르켜 준다. 75년생 혼분이라도 과욕하면 결과는 대손해로다. 87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52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이 된다. 64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면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 76년생 확신이 없는 투지는 삼가야 하리라. 88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4월 19일(음 3월 17일 甲辰)

EBS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워 한자 이야기

What is the deal 어찌된 일이지. A: John is out today. B: What is the deal? A: I think his child is sick. B: She seems to have been in poor health lately. A: I know.

中途半端な態度は良くない. 어중간한 태도는 좋지 않다. A: 田中さん、今度の企画に賛成ですか。 B: それがですね、まだはっきり言いにくいです.

走过场 zǒu guò chǎng 대충 얼버무리다. '마당을 건너 지나가다'라는 의미의 '走过场'은 전통 연극 무대에서 한 배우가 줄거리 설명을 위해 올라갔다가 간략하게 몇 마디하고 내려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馬生角(마생각) 말마, 날생, 뿔각. 마생각(馬生角)은 말머리에 뿔이 난다는 뜻으로, 세상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연(燕)나라의 태자 단자(丹子)는 진(秦)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었다.